

시설 고급화, 생산 안전성 확보

□ 취재/김용화 부장

아 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축산 발전방향 점검과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전시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태국의 수도인 방콕 소재 킨 시리키트 전시장에서 VIV-ASIA'99 행사가 4번째로 개최되었다.

지난 1997년에는 전시 참여업체가 300개사가 넘었으나 금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로 빚어진 경제난 때문인지 276개사로 감소하여 규모 면에서는 다소 위축되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 축산 관련인도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위축된 축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 개관행사장(화란 VIV 조직위원장, 태국 농무장관, 태국 VIV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테이프 절단이 의전행사의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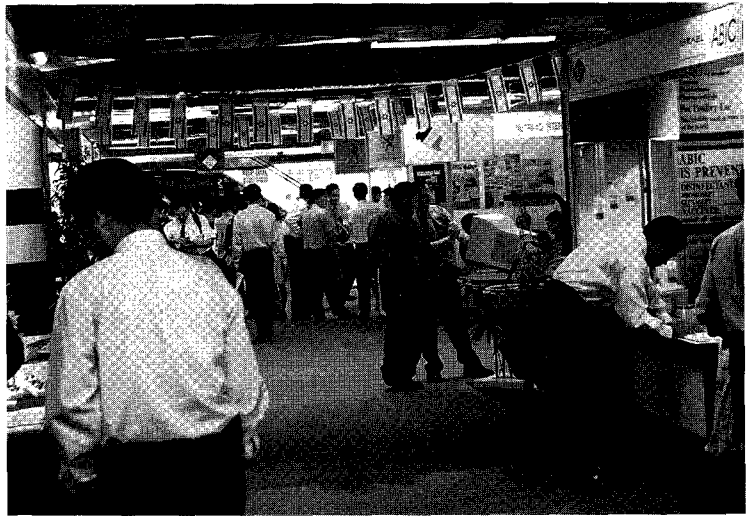
우선 행사장은 3개로 나뉘어 기계·기구(Plenary Hall), 사료 및 첨가제(Hall C Ground Floor), 동물약품(Hall C Seco-

nd Floor)으로 대별이 되었는데 기계·기구업체는 76개사, 첨가제 113개사, 약품 87개사였다(이중 일부는 섞여있어 정

확한 분야별 집계는 아니지만 전시실로 구분하고, 주력 전시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이 행사에 연속적으로 참석을 하였다는 한 관람객의 말에 따르면 금년 행사의 변화는 기계·기구업체의 전시가 줄어든 대신 사료, 첨가제, 약품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아시아 축산업이 시설투자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산물 생산에 관심이 모아진 것 같다고 하는 평가를 들어볼 수가 있었다.

기계·기구의 경우에도 신상품 보다는 기능을 보강시킨 품질 고급화가 역력했는데 세계적인 추이로 대리점 체제 공급에서 판매 전담상사나 복



△ 동물 약품 위주 전시실(Hall C Second Floor)에는 계속 상담자가 모여 안전성 확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 판매처 지향 또는 OEM 방식에 의한 생산과 판매의 다양화로 다원화 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상담 전시업체를 보면서 실감을 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나 기종을 잘 선택하면 예전보다 훨씬 싼값에 기계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대리점이 없다보니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항공료, 숙박비까지 의뢰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쉬운 국산 기자재 업체의 발전과 아울러 보호가 절대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양계인들이 양계 기자재 업체를 보호·육성하여 고품질 기자재를 손쉽게 구매하고, 고



△ 1999한국축산박람회 참가 유치를 위해 홍보자료를 나누어 주며 설명하는 오봉국 추진위원장

장시 서비스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VIV-ASIA 축산 전시회는 일본 전시를 마감하고 태국에서 199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가 되었는데 2000년부터는 중국 베이징에서도 개최가 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매년 VIV-ASIA 축산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

태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하여 다소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육계산업은 이미 세계 5대 수출국 중의 하나로 급성장을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풍부한 사료곡물 생산국임을 감안할 때 발전의 여지는 높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약 12kg에 육박해 있어 시장성도 좋은 편이다.

인구 6천만명, GNP 5천불,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태국은 식생활 개선의 빠른 변화로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축산물 생산국가로 빠르게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태국의 양계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계란생산량은 495,000

톤, 연간 육계사육수 7억3천만수, 닭고기 생산량 765,000톤, 닭고기 수출량 151,000톤이다.

장차 태국은 증가하는 관광객(연간 약 1,200만명)으로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가 늘어 두가지 다 수출 적격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점을 교훈삼아 양적 성장 위주에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수입에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 확대에 주력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양계**

양계유통전문

- 병아리 (산란계, 육용계)
- 중 추 (산란계, 중추농장 직영판매)
- 노 계 (산란계, 육용종계)



대림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179번지
전 화 : (0417) 574-4600/1

대표 : 변 광 일

농 장 : (0417)582-3827

팩 스 : (0417)572-5949